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 보고회

전주시·한국교통연구원, 추진 개편안대로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환승건수·환승 대기시간 등 단축 효과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마련한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안이 승객들의 평균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는 지난 5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안) 효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은 시내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버스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만성화된 전주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이날 제시된 개편안은 시내버스가 ▲전철버스 ▲도심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구분된 계 특징이다. 기린대로나 백제대로, 흥산로, 용머리로 등 14개 주요 노선에는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인 전철버스 154대가 배치된다. 주요 시가지나 신시가지, 대형병원, 학교 등 39개 노선에는 도심 곳곳을 목격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도심버스 202대가 운행된다. 나머지 능춘마을 등 전철·도심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마을버스 22대가 다니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개편안대로 운행될 경우 시내버스 탑승 시 1인 평균 통행시간이 기존 28분에서 25분으로 3분(10%) 단축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 노선(직선)임을 나타내주는 통행굴곡도도 당초 3.8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환승건수 또한 1만1,827건에서 9,734건으로 약 18%가 감소하고, 환승 대기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8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 수는 123개에서 53개로 대폭 줄어 노선이 단순화되고, 차량은 408대에서 356대로 52대 감차할 수 있게 돼 연간 83억원가량의 시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내로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안을 확정된 뒤 다음 달부터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1단계(완주군 이서방면) 버스 시간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2~3단계 노선개편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안) 효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간 버스 노선 시민 디자이너 원탁회의'를 열고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노선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 지난 1년간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4회에 걸친 노선개편 빅데이터 효과분석을 실시해 효율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신력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안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완주군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그린 뉴딜·신남방 국가 진출 추진 '맞손'

전주시·전북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업무 협약

전주시가 농생명 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신남방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신형식)은 지난 5일 전주시장실에서 '그린 뉴딜과 신남방 국가 진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에 발맞춰, 베트남 호치민을 교두보로 삼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에 힘을 모으고, 농생명 신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과 공동 연구 등 신남방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을 이끌 유강열(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농생명 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인 천기술과 사업화 기술 개발을 통해 신남방 국가로 진출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과 우수 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본인 명의 휴대 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과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검사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 생태·숲놀이터 동화스토리 창작 공모전 개최

전주시 야호 생태·숲놀이터를 소재로 한 동화가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야호 생태·숲놀이터를 소재로 한 동화스토리 창작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야호 생태·숲놀이터 명칭을 활용한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야호 생태·숲놀이터만의 특징이 들어가는 내용의 동화다. 단, 타 공모전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의 경우 제한된다. 응모

작품은 A4용지 3~6장 분량(글자 휴먼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여백: 상·하 15mm, 좌·우 20mm)으로 작성하면 되며, 응모 자격제한은 없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야호놀이점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응모작품 등을 이메일(CJFALS2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모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창의성 ▲야호 생태·숲놀이터 표현성 ▲홍보 가능성 ▲작품의 활용성 등을 평가한 뒤 총 4명(팀)을 선정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대상(1명) 200만원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된 동화 작품의 경우 향후 전주 야호·생태숲놀이터 홍보에 활용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보건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돌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6일부터 병원 내 보건의료인 2,1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00여명분이 병원에 입고됐으며, 접종은 6일부터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까지 닷새간 계속 실시된다. 2층 새 단공홀에서 진행된다.

병원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과 환자 및

접 접촉부서인 이송요원과 확진자 치료병동 미화요원 등 2,077명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사 및 간호사) 및 종사자 190여명은 화이자백신이 접종되며, 화이자백신은 15일 입고돼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접종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팀을 구성해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방접종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준비 상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대응체계 등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약표 작성 ▲접수 ▲예진 ▲접종 ▲접종 후 대기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조남천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기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에게 우선 접종 기회가 주어질 만큼 접종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 지원

전주시, 31일까지 상생협약 체결할 상생건물 모집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의 '동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으로,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는 공사 시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다만, 상생건물은 향

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구도심 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동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